

레저

강원도 영월의 행복한 여름

별 쏟아지는 여름밤 추억 쌓고
굽이굽이 짜릿한 동강 래프팅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피하는 방법은 많다. 바다로 여행을 떠나거나 시원한 계곡물에서 발을 담그고 있으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이렇게 몸의 피로를 풀면서 머리도 식힐 수 있는 휴가는 어떨까?

국내 유일의 '박물관고을 특구'로 지정돼 있는 강원도 영월군. 원시의 비경을 자랑하는 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이곳은 정신적인 충전과 함께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하는데 안성맞춤인 휴가지다. 광주·전남에서는 다소 멀긴 하다. 그렇지만, 한 번 다녀온 이들은 시간 있을 때 배낭을 들쳐 메고 무작정 떠나보라고 권유한다. 태고의 비경을 간직한 동강의 속살과, 옛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가 볼 수 있는 '박물관 고을'의 매력 때문이다.

◇영월 10경 중 최고인 동강에서 즐기는 래프팅=래프팅을 위해 동강을 따라 올라가는 좁은 길은 나그네의 땀을 빼놓기 충분했다. 꺾이지는 듯한 절벽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줄기, 그 위로 아득한 원시림의 유혹... 백두대간에서 뿜어져 나온 물줄기가 산골짜기를 돌고 돌아 60km 넘는 동강을 이룬다. 동강으로 가는 일부 구간은 비포장길이 많다. 그만큼 사람들의 손때를 덜 탄 곳이기도 하다.

래프팅 시작 지점인 영월읍 문산나루터에서 노를 들고 보트를 천천히 지나가자 동강의 진짜 모습이 시나브로 다가온다. 천혜의 비경이라는 말은 여기에 쓰는 것일까. 래프팅을 하며 바라다본 풍경은 가히 절경이었다. 차를 타고 속 지나가던 풍경과 달랐다. 질푸른 녹음이 강 옆으로 우거진데다 가파른 절벽 밑에는 크고 작은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다. 제멋대로 울퉁불퉁 강 가운데 솟아있는 바위하며, 두꺼비나 코끼리를 닮은 바위, 다양한 모습의 민물고기 등이다.

잔잔한 물살에 몸을 싣고 동강의 속살에 넋을 잃은 순간, 갑자기 꺾여지며 굽이치는 물살에 놀라 노 잡은 손에 땀이 땀다. 래프팅은 속도와 담력이 좌우하는 여름 스포츠다. 많게는 10여명 가량 탑승하는 보트는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정신을 빼놓는다. 물살이 빠르고 폭이 좁은 데서는 보트가 요동쳐 금방이라도 뿔겨져나갈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으쌰으쌰' 노를 저으면 빠른 물살도 이겨낼 수 있다. 잔잔한 물살로 헤쳐나오게 되면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느껴질 수 있다. 중간 중간 강에 빠져 허우적대보는 것도 추억이다. 물론 안전장구는 착용을 잊어선 안 된다.

두꺼비 바위~어려연(魚羅淵)~만지~동강댐 예정지~섬세강변까지 이어지는 12km 구간(2시간30분~3시간 소요)은 가족단위나 소그룹 단위의 래프팅 코스로 최적이다. 경관도 동강 중에서 가장 빼어난 곳이 풀려 있는 만큼 이 코스를 이용하면 동강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특히 소문으로만 접하던 '어려연'을 지날 때에는 노 젓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변경관에 빠져들어 물아(物我)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동강 협곡이 빚어놓은 절경 중 가장 이름난 곳인 '어려연'은 일명 삼선암(三仙岩)으로도 불린다. '고기가 비단결 같이 떠오르는 연못'의 뜻인 이곳은 풍광이 워낙 수려하다 보니 옛날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광주에서 동강까지 승용차로는 약 400여km 거리로 5시간 가량 소요된다. 대중교통은 광주~태백간 직행버스를 이용해 영월읍에서 내린 후 다시 읍내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매일 1회 오후 2시 출발, 6시간 소요. 직행버스 요금은 2만7200원, 래프팅 이용시 요금은 2만5000~3만원 사이.

◇박물관 따라 선현들의 자취 따라=영월군은 16개 박물관과 미술·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박물관고을 특구'다. 동강사진박물관, 곤충박물관, 화석박물관, 호야지리박물관, 아프리카미술박물관, 국제현대미술관, 호안다구박물관, 별마로천문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동강사진박물관은 국내 최초 공립사진박물관으로 주로 진솔한 삶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진물을 전시하고 있다. 현재 22일까지 일정으로 '2010 동강국제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국내외 정상급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해발 800m의 영월 봉래산 정상에 위치한 별마로천문대는 국내 최고의 관측여건을 갖춘 곳으로 유명하다. 천문대 옆 천문과학교육관에서는 별자리 여행과 천문 강의 등을 위한 영상강의실, 전시실, 취미교실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영화 '라디오 스타'(안성기·박종훈 주연) 촬영지로 유명한 이곳 정상에 서면 소박한 영월읍내의 야경을 볼 수도 있다.

영월곤충박물관은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지난 2002년 5월 문을 연 이곳엔 날개에 화려한 태극무늬가 그려진 태극나방을 비롯, 한라산에서 설악산까지 날아간다는 왕나비, 쇠뿔구리, 장수하늘소, 풍뎅이 등 1만여 종 3만여 점의 곤충 표본이 전시돼 있다. 이들 곤충 표본은 모두 이대암 관장이 30년 동안 발품을 팔아 수집한 것들이다. 이 관장은 한국인 최초로 새로운 해성을 발견한 아마추어 천문가이기도 하다. 국제천문연맹은 그가 발견한 해성을 '이-스완(Yi-Swan)'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단종 유배지 '청령포'=수려한 절경으로 인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청령포에 얽힌 단종의 비화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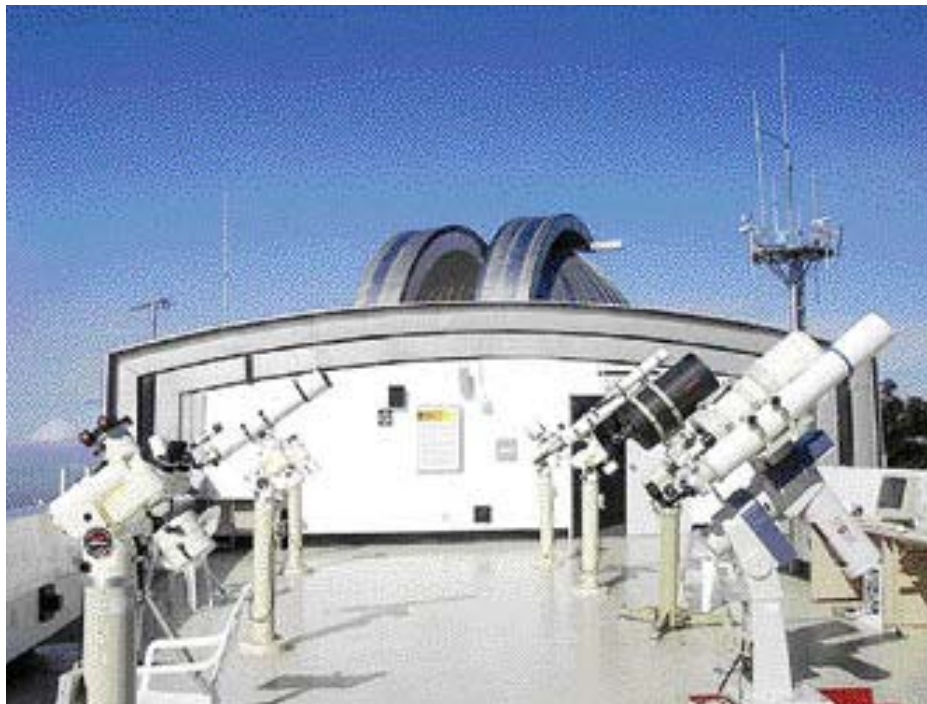
청령포는 영월군 남면 관천리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단종의 유배지. 지난 2008년 12월 국가지정 명승50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상왕으로 있다가 그 다음해인 1446년 성삼문 등 사육신들의 상왕복위의 움직임이 사전에 누설됨으로써 상왕은 노산군으로 강봉돼 중추부사 노득해가 거느리는 군졸 50인의 호위를 받으며 원주, 주천을 거쳐 이곳 청령포에 유배되었다. 단종은 이 적막한 곳에서 외부와 두절된 유배생활을 했으며, 당시에는 이곳에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어 호장 엄흥도는 남몰래 밤이면 이곳을 찾아 문안을 드렸다고 전한다.

이곳 청령포는 동, 남, 북 삼면이 물로 둘러싸이고 서쪽으로는 육육봉이라 불리는 험준한 암벽이 솟아있어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밖으로 출입할 수 없는 마치 섬과도 같은 곳이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동강의 '어려연'은 영월 10경 중 으뜸이다. 꺾이지는 듯한 절벽과 원시림으로 둘러 쌓인 '어려연' 일대에서 래프팅을 즐기면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도 이겨낼 수 있다. (영월군 제공)



영월군은 16개 박물관과 미술·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박물관고을 특구'로 지정돼 있다. 왼쪽은 해발 800m의 영월 봉래산 정상에 위치한 별마로천문대로 국내 최고의 관측여건을 갖춘 곳으로 유명하다. 오른쪽은 동강사진박물관으로 22일까지 '동강국제사진전'이 열린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이해당합니다. 수리당합니다. 가격당합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3) 227-9940
부산지점 (063)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063-227-9940

4성급 호텔

- 1. 객실 44실, 11인실 10실, 2인실 34실, 3인실 10실
- 2. 24시간 서비스, 24시간 보안, 24시간 청소, 24시간 세탁, 24시간 주차, 24시간 보안, 24시간 소방, 24시간 화재, 24시간 안전, 24시간 의료, 24시간 법률, 24시간 상담, 24시간 여행, 24시간 관광, 24시간 정보, 24시간 기타
- 3. 24시간 서비스, 24시간 보안, 24시간 청소, 24시간 세탁, 24시간 주차, 24시간 보안, 24시간 화재, 24시간 안전, 24시간 의료, 24시간 법률, 24시간 상담, 24시간 여행, 24시간 관광, 24시간 정보, 24시간 기타